

‘신정아 쇼크’...광주비엔날레 차질

일정 뒤틀려 ‘벼락치기 준비’ 예고

감독 재선임, 선정위 구성도 어려울 듯

신정아 공동예술감독이 12일 학위위조 파문으로 낙마함에 따라 내년 9월 열리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체 일정이 엉켜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출범 13년만에 채택한 내외국인 공동 감독제가 출범부터 꼬이면서 주제, 선정, 참여작가 선별, 전시장 구축 등 행사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 개막을 불과 3일 앞두고도 작품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차질을 빚기도 했다. 뼈대한 전시일정에 쫓기다 보니 비엔날레 전시구성에 필수적인 ‘파티션’(전시장 실내 칸막이) 공사가 예년에 비해 2개월 가량 늦어지는데다 일부 전시프로젝트의 경우 최종 작가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재단은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감독 선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사리

결론이 내려지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국내 감독을 재선임키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감독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파문으로 신 감독을 감독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 공개 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위 구성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실사 선정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감독 후보추천, 검증, 선정절차 등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쿠이 공동감독에게 단독으로 감독직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오쿠이 감독은 계약상 개막 3개월 전부터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오쿠이 감독이 행사기획을 도맡을 경우 국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감독 선정 문제로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는 있으나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갑수 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이 12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정아 감독의 선임철회를 발표한 뒤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내년 비엔날레 준비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선임의 파장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당초 재단은 지난 2006년 비엔날레를 치른 김홍희 감독의 경우 2005년 4월에야 선임됨으로써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 선임을 지난 3월까지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5개월여를 허비한 끝에 선임된 감독이 좌초함으로써 제7회 비엔날레의 감독들은 전임 감독보다 최소 4개월여 뒤늦게 행사를 준비해야할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전시주제 설정, 전시큐레이터 선임, 전시장 구성 등 각 부문은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 비엔날레의 커다란 골격이다.

이 같은 스케줄은 기계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전체일정이 도미노처럼 뒤엎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02년 제4회 비엔날레의 경

무안공항 명확한 지위 설정 시급 취항지역도 서남아권까지 넓혀야

전남도청서 활성화 회의

오는 11월 개항 예정인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의 명확한 지위 설정과 다양한 항공노선 개발, 항공사들이 운항편수나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오픈스카이’(Open Sky) 정책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항운영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회의에서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먼저 무안공항의 위상정립을 촉구했다. 그는 무안공항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대체키로 방침이 서있지만 현재 두 공항 모두 ‘거점공항’의 지위를 갖고 있어 역할분담에 따른 준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안공항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안공항 주변지역에서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중국의 동북 3성(길림·요녕·흑룡강성)과 함께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권까지 취항지역을 넓혀 무안공항을 특색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성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국장은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12개 국가와 항공운항을 자유화하는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어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어 양국 항공사는 인천과 중국 산둥성 주요 도시간 요금을 40만원 대에서 20만원 대로 떨어뜨려 이용객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 취항 항공사간 오픈스카이 협정으로 이용객을 증가시켜 공항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김석원 전남도의원(민주당·무안 1)은 “지난 5월 25일 전남도가 인가한 무안공항과 광주, 목포, 순천을 잇는 시외직행버스 운송 횟수는 하루 9차례밖에 안돼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투자유치시 대상 지역간 항공취항 협정을 맺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줄 것과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관련 업체의 업무공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상준 한국공항공사 목포지사는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지량기자 unipark@kwangju.co.kr

“국민 62% F1 특별법 제정 찬성”

통합민주당 2,062명 조사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F1 특별법(포들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62.3%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유선호 민주당 의원(영암·장흥)은 “통합민주당 중앙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천6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우선, F1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전체 62.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F1 대회 유치에 따른 국가·지역 경제 기여도 및 국가 이미지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각각 전체의 64.9%, 73.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12일 임시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간략히 우선 사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조만간 간략히 우선 사용 문제가 가닥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회 정무부지사 ‘불신임 결의안’ 일단락

이상면 부지사 유감 표명키로

전남도의회가 상임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이 부지사가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의장단은 11일 정무부지사의

상임위 불출석 및 불신임 결의안 추진에 대한 중재에 나서 이 부지사가 오는 13일 제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로 조율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경제관공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씨 삼풍 사고때 24시간 갇혀 있다 구조

범상치 않은 과거 눈길

‘미술계의 신데렐라’에서 하루아침에 ‘제2의 황우석’으로 추락한 신정아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은 화려한 허위 이력 못지 않게 범상치 않은 과거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공식적으로 신 감독의 선임철회를 밝힌 12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는 한때 ‘신정아’와 ‘신정아 가짜허위’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씨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24시간 동안 갇혀있다 구조됐다는 사실. 이와 관련 신씨는 지난 2004년 ‘주조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고를 통해 내성적인

성격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여자로서 다행인 것은 붕괴 당시 얼굴을 덮은 해변용 타월 때문에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서졌는데 얼굴은 말장했던 것”이라며 “지금 인생이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일들이 쉬워보이고 추진력이 강해져 일도 잘 풀렸다”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신씨는 평소 미술계 비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지난 2006년 10월 상하이 비엔날레 큐레이터인 A씨가 쓴 전시서문이 외국의 비평가 원고를 표절한 사건이 일어나자 강하게 비판했는 가 하면 지난 6월 미술대전 비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신씨 선정위서 1표 얻고도 최종후보 발탁

감독 선임 외압설 등 의혹

가짜 학위 제출로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이 철회된 신정아씨는 감독후보선정위원회 후보추천 투표에서 고작 1표를 얻고도 최종 후보에 발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씨의 감독발탁에 외부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후보선정위의 한 위원은 “5월22일 열린 2차 공동 예술감독후보 선정위원회에서 고작 1표를 얻은 신씨가 국내감독으로 최종 선임됐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다득표를 한 후보가 후보직을 고사해 차점자가 당연히 최종후보에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가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2차 선정위에서는 국내 감독후보 9명과 외국인 감독후보 5명 등 모두 1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작업을 벌였으나 국내 감독의 경우 다득표를 한 후보가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그와 함께 나선 차점 후보 역시 추천이 무효화됐다.

선정위는 결국 감독선임을 이사장과 재단 측이 떠넘기면서 단 1표만을 얻었던 신씨가 최종후보로 발탁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 것이다.

후보 선정을 위해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회가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사장의 간곡한 ‘설득’으로 신씨를 국내감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성공투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상가!

1650여 세대를 품은 독점상권

수원지구 새안포유단지내 상가분양

10000

10000

357세대

583세대

307세대

분양문의 1588-9899

주:세한건설

주:세한포유건설

(주)모인(주)